

APOSHO 18 Vietnam 개최



지난 10월 8일 베트남에서는 아시아태평양산업안전보건기구가 주최한 “APOSHO 18 Vietnam”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등 각 회원국의 안전관계자와 회원들이 참석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협회의 이흥지 회장 일행이 참석하였다.

주제별 세미나 발표와 토론회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서는 베트남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안전기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베트남에서 일고 있는 한류 열풍이 산업안전보건에서도 불어오지 않을까 예상된다.

청도 안전과학기술연구중심 업무협약 체결



안전협회는 지난 1월 북경의 “중국국가경제무역위원회 안전과학기술연구중심”, 천진시의 “경제위원회 안전관리생산협회”와 산업재해를 위한 안전 관련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10월 16일 안전과학기술연구중심 청도 사무소와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안전협회는 본격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 한 단계 한단계 발을 내딛고 있어 향후 중국 대륙에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기법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이날 체결된 협정서의 주요내용으로는 ▲

중국 현지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안전교육 등에 대한 공동수행 ▲ 안전전문기술인력의 교류 ▲ 기술정보 및 자료교환 등으로 되어 있다.

서울지역 안전인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고척 근린공원 운동장에서 서울지역 안전관계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22일 “무재해 기원을 위한 서울지역 안전인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안전협회 서울지회(윤경채 국장)가 주관하여 실시되었다.

안전협회 이홍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인들이 우리나라의 무재해 산업사회 구현에 앞장설 것”과 “안전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철도청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사·실천 지도 용역” 결과 중간 발표



지난 9월 25일 대전정부종합청사 철도청에서는 4월부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사·실천 지도 용역”의 일환으로 실시한 안전컨설팅 결과에 대한 중간발표회를 김형박 안전환경실장을 비롯한 철도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는 안전협회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선로보수업무 및 선로순회”, “수송업무 중 입환분야”, “전기보수업무분야”에 대해 “현상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조사·분석” 등 5가지 과업 수행에 따른 개선대책을 제시하였으며, 11월에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에서 제시된 개선책은 철도

청에서 향후 철도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 발생율이 높은 다른 직종 등에도 확대·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회 회원사 중앙회 방문



안전인 등반대회 및 친목도모를 위해 10월 18일 회사를 나선 수원지회 회원 35명은 안전협회 중앙회를 방문하였다. 이 날 방문은 협회에 대해 알고, 앞으로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갖었다.

8월 재해율 0.03%P 감소

노동부는 지난 10월 18일 2002년 8월 산업재해현황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 의하면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0.50%와 1.61%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0.03%P, 0.08%P 감소한 반면 재해자수는 52,705명으로 1,175명 증가하였고, 사망자수는 1,693명으로 50명 증가하였다. 이는 사업장수와 근로자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추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자수는 3,70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68명(4.75%)이 증가하였다. 이 중 난청, 중금속 중독 등의 직업병자는 914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84명(25.2%)이 증가한 반면 전년 동기대비 뇌·심혈관 질환자(1,414명)는 94명(6.2%) 감소,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질환자(775명)는 235명(43.5%) 증가, 요통질환자(479명)는 118명(19.8%) 감소 등 작업관련성 질병자는 전반적으로 16명(6.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지속적인 추진

정부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의식을 향상시키는 한편, 안전전문인력 육성, 18개 재난관리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철저한 현장 확인행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03년도 국가재난관리 주요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7일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그간 18개 안전관련 부처에서 수립한 내년도 국가재난관리 계획이 지난 9월말 중앙안전대책위원회로부터 심의 확정됨에 따라 각 부처별 재난계획을 묶어 28개 관련기관 및 지자체에 최근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노동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신규 미숙련 근로자의 증가 등으로 사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노·사의 산업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하고 대형사고 예방 및 제1차 산업재해 예방 5개년 계획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